

CHAOXIAN — HANGUO
YUYAN WENXUE YANJIU

조선-한국언어 문학연구

3 연변대학 조선언어문학학과 편

민족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朝鲜-韩国语言文学研究. 3 /延边大学朝文系编.

北京 : 民族出版社, 2006.1

ISBN 7-105-07466-3

I . 朝... II . 延... III. ①朝鲜语-对比研究-朝鲜、韩国-文集-朝鲜语②文学-对比研究-朝鲜、韩国-文集-朝鲜语 IV. ①H55-53②I312.06-53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6)第004203号

民族出版社出版发行

(北京市和平里北街14号 邮编 100013)

<http://www.e56.com.cn>

迪鑫印刷厂印刷 各地新华书店经销

2006年2月第1版 2006年2月北京第1次印刷

开本: 787毫米×1092毫米 1/16 印张:25.25 字数: 384千字

印数: 0001-1 000册 定价: 36.00元

该书如有印装质量问题,请与本社发行部联系退换。

(朝文室电话: 64228211; 发行部电话: 64211734)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김병민 전학석

편집 위원: 김관웅 김호웅

채미화 허휘훈

김영수 유춘희

강은국 문일환

본호 편집: 최 일

此书系延边大学“十五”规划、
“211工程”建设资助项目

차 례

I. 언어연구

『룡비어천가』의 문체적특징과 번역기교에 대하여 김영수◆	2
‘가장’과 ‘제일’의 의미와 구문론적 특성 유춘희◆	17
신체언어의 본체론적 탐구와 해독 김 일◆	32
의문 대명사의 담화적 기능 김향화◆	41
조선운서의 사용에 미친 화음의 영향 리승자◆	50
보조동사 ‘아/어/여 두다/놓다’의 의미와 중국어에서의 대응 심현숙◆	66
보조동사 ‘-지다’ 및 중국어에서의 대응관계 마금선◆	78
‘한국어회화 교수요강’과 ‘기능·의념’ 항목 김순녀◆	93
한, 중 ‘예정상’ 표현형식 대비연구 김경화◆	111

II. 문학연구

허난설헌 남매의 문학적 교유 허경진◆	126
茶山 서사시 「三吏」의 아전형상 정일남◆	146
중한고전소설에서의 홍낭형상 비교론 리광재◆	162
동아시아의 근대화와 중국의 한국형상 김병민◆	180
현경준 소설 연구 채미화◆	201
리륙사(李陸史)의 《로신(魯迅)추도문》 공과(功過)문제 김병활◆	218
근대에 대한 성찰과 우리문학의 새로운 주제 김호웅◆	235

조선족 초중 『조선어문』 교재연구	김경훈◆247
단재 문학의 해석과 국문소설관	최옥산◆261
간도체험과 한국프로문학	최 일◆276
재중조선인시문학의 이미지특성연구	장영미◆288
중국 조선족 초기 장편소설의 두 양상	리해영◆303
이북 시인 김순석과 그의 시문학관	김영수◆329
황구연구전민담의 분류	주송희◆346

III. 신문방송연구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이후 중국언론의 변화	리봉우◆372
신문광고문안의 텍스트언어학적 고찰	서옥란◆385

I. 언어연구

《통비어천가》의 문체적특징과 번역기교에 대하여

김영수(연변대학 조선-한국학학원)

【본문요지】

《통비어천가》는 조선문자가 창제된후의 첫 작품으로서 조선말연구의 가장 귀중한 재료의 하나로 되고있다. 본문에서는 이왕의 본체론적연구의 틀을 벗어나 주로 문체와 번역수법의 결합관계로부터 15세기 조선어 시가문체의 특징과 시가체번역방면의 기교들을 고찰, 분석하였다.

주제어: 시가체, 운률, 번역기교, 결합관계.

《통비어천가》는 훈민정음이 창제된후의 첫 정음시가체문헌으로서 1447년에 출판되었다. 이 책은 정음철자의 시금석으로 되는 문헌으로서 시가가 정음자로 표기되어있고 표기가 정연하여 15세기의 언어실태와 문체론 연구의 중요한 사료로 될뿐만아니라 한문시번역의 최초의 작품으로서 번역의 사적연구와 방법론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책의 구성을 보면 10권 125장으로 되여있는데 1장과 종장만은 각기 한절과 세절로 되고 그외의 장들은 다 두절로 되여있으며 조선어 시가의 운률에 맞춰 대체적으로 2행 6구체와 2행 8구체 형식을 취하고 뒤에 4언 8구체 또는 5언 6구체로 된 한문시와 주해를 달아놓았다.

본문은 주로 이 책의 문체상 특징과 다양한 번역술법들의 결합관계를 동시대의 산문체번역과 비교하면서 고찰, 분석한다.

I. 문체적특징

『룡비어천가』는 정음자가 창제된후의 가장 시초로 되는 시가체번역으로서 동시대의 산문체에서 별반 쓰이지 않는 반복수법, 대조수법, 대구수법 등을 리용하여 시가체의 다양한 수법들을 확립하고 활발히 쓰면서 시의 표현력을 높이고있다.

1. 반복수법

반복수법은 같은 단어나 구조를 되풀이하는 방법으로 문장의 표현적효과를 높이는 문체적수법인데 이 수법이 『룡비어천가』에서 많이 쓰이고있다.

예:

維周太子 維天擇兮 兄讓既遂 聖孫出兮 維我世子 維天簡兮 帝命既降
聖子誕兮 (8장)

역문:

太子를 하늘히 골희사 兄가 땄디 일어시늘 聖孫을 내시니이다
世子를 하늘히 골희사 帝命이 누리어시늘 聖子를 내시니이다

역문에서 『골희사』와 『내시니이다』가 각기 반복적으로 쓰이고있는데 이것은 원문의 『擇』과 『簡』이 다 『가리다』는 의미의 공통성을 가지고있고 『出』과 『誕』도 『낸다』는 의미의 공통성을 가지고있는데 기초하여 반복수법을 적용한것으로서 시의 운률을 맞추면서 표현적효과를 높이고있다.

2. 대조수법

대조수법은 대립, 반대되거나 또는 상반관계에 있는것들을 짹을 맞추어 비교하면서 표현적효과를 높이는 문체적수법의 일종인데 이 수법

은 《룡비어천가》의 내용구성상의 특성으로 하여 적지 않게 쓰이고 있다.

例:

爰発三箭 爱中三雀 府中遼使 奇才是服 遷射一矢 遷落二鵠 路傍田叟
大功斯立 (57장)

역문:

세 살로 세 셀 쏘시니 府中엔 遷使 | 奇才 를 과혹수 봉니
흔 살로 두 셀 쏘시니 깊으신 百姓이 큰 功을 일우수 봉니

역문에서 첫번째 시행과 두번째 시행이 서로 음절을 맞추어 대조되었을뿐만 아니라 내용상에서도 서로 대조되어 대비속에서 찬미하려는 대상을 두드러지게 부각하여 표현적효과를 높이고있다.

3. 대구수법

대구수법은 주로 같은 구조를 되풀이하면서 표현적효과를 높이는 수법인데 《룡비어천가》에서 이 수법도 널리 쓰이고있다.

例:

狄人輿廻 狄人於侵 岐山之遷 實維天心 野人与廻 野人不禮 德源之徙
實是天啓(4장)

역문:

狄人へ서리에 가사 狄人이 굴외어늘 岐山 을 드셨도 하눔 뜨디시니
野人へ서리에 가사 野人이 굴외어늘 德源 을 드셨도 하눔 뜨디시니

역문은 원문의 《侵》과 《不禮》, 《遷》과 《徙》, 《天心》과 《天啓》가 서로 동의적관계에 있는것을 리용하여 운률을 맞추어 앞의 시행과 뒤의 시행의 구조를 똑같게 하여 시의 표현적효과를 높이고있다.

II. 번역과 운률

『룡비어천가』는 대체적으로 직역을 많이 하였는데 장을 단위로 순수한 직역형이 36개이고 직역위주형이 84개이며 직역의역결합형이 5개가 있다. 이런 번역수법들은 산문체번역에서도 다 쓰이는 수법이지만 시가체로서의 특징을 가지는 것은 『룡비어천가』가 조선시가의 전통적인 운률적특성을 살리였다는 데 있다. 조선시가의 운률은 흔히 음절수에서 표현되는데 『룡비어천가』는 조선시가에서 널리 쓰이는 《3.5》조, 《3.4》조와 같은 음절들을 단위로 하였기 때문에 비록 번역시라고는 하지만 순수한 조선시가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아래에 직역형, 직역위주형과 직역의역결합형에서 조선시가의 운률을 살린 예들을 보도록 한다.

1. 직역형

례:

東征無功 盡放所掠 歡呼之聲 道上洋溢 西征建功 盡還所獲 仁義之兵
遼左悅服(41장)

역문:

동정에 功이 몯이나 所掠을 다 노호샤 歡呼之聲이 道上에 그득하니
서정에 功이 일어늘 所獲을 다 도로주샤 仁義之兵을 遼左 | 깃스뿐니

역문은 전형적인 직역으로 되었는데 첫행은 3.5.3.4.5.3.4의 음절수로 배열되었고 두번째행은 3.5.3.5.5.3.4의 음절수로 배열되어 조선시가에서 3음절과 5음절이 많은 운률을 맞추었다. 여기에는 의식적으로 음절수를 맞춘것도 있다. 이를테면 『몬이나』와 같은 부정구는 산문체에서는 흔히 『이루어 지지 못하나』, 혹은 『이루지 못하나』와 같은 형식으로 되는것이 상례이지만 3음절과 5음절의 운률에 맞추기 위해 산문체의 표현과는 달리 『몬이나』로 처리하였다.

2. 직역위주형

직역위주형은 직역을 주요한 수단으로 하면서 원문의 부분적 단어들을 역문에서 첨가하거나 생략하는 류형을 가리키는데 《통비어천가》에서는 이 류형의 번역에서도 조선시가의 운률을 맞추었다.

례:

出奇無端 賊前是歷 彼寇賊兮 莫測不出 變化無窮 賊間是度 彼寇賊兮
莫測相聚(60장)

역문:

出奇 無端^ㅎ실찌 도ぞき 알풀 디나샤 도ぞき 뿐 몰라몬 나니
變化^丨 無窮^ㅎ실찌 도ぞき 소실 디나샤 도ぞき 뿐 몰라모두니

례문의 역문에서는 원문의 앞시행과 뒤시행의 대명사 《彼》를 함께 생략하고 앞뒤시행에 동시에 원문에 없는 《뿐》을 첨가하여 역문을 간결하면서도 뜻을 명료하게 하였으며 앞뒤 시행의 음절수를 조선시가에서 널리 쓰는 3.5.3.5.3.6조로 맞추어놓아 시로서의 운률을 고르게 하였다.

3. 직역의역결합형

직역의역결합형은 한 문장안에서 직역도 하고 의역도 한 류형을 가리키는데 《통비어천가》에서는 직역한 부분이나 의역한 부분이 다 조선시가의 운률적 특성을 살리고 있다.

례:

佞臣善諛說 驕心不可遏 此意願毋忘(117장)

역문:

佞臣이 善諛^ㅎ야 驕心이 나거시든
이 뽀들 낫디 마르쇼셔

례문의 원문과 역문을 대조해보면 원문의 첫 구와 마지막 구가 역문에서 직역으로 되었고 가운데 구가 의역으로 되고 있다. 만약 가운데 구를 직역으로 한다면 《驕心을 억제할수 없거시든》으로 되는데 역문문 맥에 잘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하여 역자들은 《驕心이 나거시든》으로 의역하여 직역한 부분과 더불어 조선시가의 운률에 맞게 3.4.3.4.3.6조로 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룡비어천가》는 직역을 하든, 의역을 하든 다 조선시가의 운률적 특성을 살리면서 번역하여 한문시가체번역의 길을 개척해놓았다.

III. 번역기교의 활용

《룡비어천가》는 시가체번역에 어울리는 다양한 번역기교들을 적용하여 시로서의 표현력을 높이고 있는데 주로 조선시가의 운률적 특성에 맞게 각이한 기교들을 적용하였다.

1. 의미구체화수법

례:

海東六龍飛 莫非天所扶 古聖同符(1장)

역문:

海東 六龍이 누르샤 일마다 天福이시니

古聖이 同符하시니

례문의 《莫非》는 부정의 부정으로서 《아닌것이 없다》는 긍정적의 미를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문맥과 음절수에 비추어 3음절로 《일마다》로 하였고 《天所扶》는 《하늘이 도운다》는 뜻인것을 음절을 조절하여 《天福》으로 처리하여 《天福이시니》와 같은 5음절로 만들었다.

解:

漆沮陶穴 後聖以矢 帝業憂勤 允也如彼 赤島陶穴 今人猶視 王業艱難
允也如此(5장)

역문:

漆沮 놋 옴흘 後聖이 니르시니 帝業 憂勤이 더러하시니
赤島 안행 옴흘 至속에 보습느니 王業 艱難이 이리하시니

《陶》는 위나 《흙산》을 말하는데 역문에서 첫행에서는 《놋》(가)로 번역하고 후행에서는 《안》으로 번역하였다. 《陶》를 이처럼 서로 다르게 번역한 것은 문맥에 어울리게 하기 위하여 각이하게 처리한 것이다. 즉 첫행에서는 《陶穴》이 《漆水》와 《沮水》 두 강사이에 있는 《흙산의 옴》을 가리키기 때문에 《강》이라는 언어환경을 고려하여 《놋》를 선택한 것이고 두번째행에서는 《陶穴》이 《赤島》라는 섬안에 있는 《흙산의 옴》을 가리키기에 조선어의 표현상관습에 따라 《안》으로 처리한 것이다.

解:

維周聖孫 一怒而起 六百年業 洛陽是徙 維我聖子 三讓雖堅 五百年邦
漢陽是遷(14장)

역문:

聖孫이 一怒하시니 六百年 天下 | 洛陽애 옮으니이다
聖子 | 三讓이시나 五百年 나라히 漢陽애 옮으니이다

례문에서 첫행의 《業》이 역문에서 《天下 |》로 되였는데 이것은 주로 후행의 《나라히》와 음절을 맞추어 서로 대응되게 하기 위하여 의미를 구체화한 것이다.

의미구체화수법은 이와 같이 단어가 구체적인 문맥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역문의 문맥에 어울리게 번역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첨가수법

《통비어천가》에는 첨가수법이 17번 적용되고 있는데 그 류형들을 보면 음절을 맞추기 위한 첨가와 앞뒤절의 조옹을 위한 첨가로 나누어 볼수 있다.

1) 음절첨가

解:

將降賢君 天誘駙馬 維二孔雀 用以圖寫 欲彰聖武 天誘厥辟 維十銀鏡
用爲侯的(46장)

역문:

賢君을 내요리라 하늘히 駙馬 달애샤 두 孔雀일 그리시니이다
聖武를 뵈요리라 하늘히 님금 달애샤 열 銀鏡을 노호시니이다

역문의 《孔雀일》의 《일》은 《이》와 대격토 《르》의 결합으로 된 것인데 《이》는 결합모음으로서 후행의 《銀鏡을》과 음절수를 맞추기 위해 《孔雀》 뒤에 첨가한것이다.

2) 조옹을 위한 첨가

解:

止之亦進 路畔留兵 遂率四人 按舊而行 請而自往 山下設伏 遂率百人
解鞍而息(58장)

역문:

말이숨거늘 가샤 깅 ॲ세 軍馬 두시고 네 사롭 드리샤 셜슬 치자보시니
내 니거지이다 가샤 山 미틔 軍馬 두시고 온 사롭 드리샤 기르말 밧기시니

역문에서 후행의 《軍馬》는 원문에 없는 단어를 보충한것인데 주로 첫행의 《軍馬》와 조옹되게 하여 음절을 고르게 한것이다.

3. 생략수법

《룡비어천가》에서 가장 많이 쓰인 기교는 생략수법으로서 무려 157차나 쓰이고 있다. 생략수법이 대량적으로 적용된 것은 문체와 관계되는데 《룡비어천가》는 시가체로서 조선시가의 운률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음절수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필연적으로 생략수법이 많이 쓰이게 되었다.

《룡비어천가》에서의 생략수법은 주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류형으로 갈라볼 수 있다.

1) 음절수에 의한 생략

례:

赤鵲銜書 止實之戶 聖子革命 爰示帝祐 大蛇銜鵲 實樹之揚 聖孫將興
爰先嘉祥(7장)

역문:

불근새 그를 므려 寢室이폐 안즈니 聖子革命에 帝祐를 봐수 볼니
부야미 가칠 므려 즘겟가재 연즈니 聖孫將興에 嘉祥이 몬제시니

례문에서 《大蛇》의 《大》가 역문에서 생략되어 《부야미》로 되었는데 이것은 첫행의 《불근새》와 음절을 맞추기 위해 생략한 것이다.

2) 군더더기를 없애기 위한 생략

《룡비어천가》에는 군더더기를 없애기 위한 생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품사류에서는 대명사가 많이 생략되고 문장성분에서는 규정어나 상황어 그리고 한문에서 보충설명으로 되는 부분이 많이 생략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생략은 산문체번역에서는 흔치 않은 현상으로서 시가체번역의 특징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례:

① 東門之外 矮松立折 聖人神功 其又何若(89장)

역문:

東門 밧기 독소리 것그니

聖人 神功이 쏘 엇더吭시니

② 天爲建國 天命斯集 亭上牌額 三中不錯(32장)

역문:

天爲建國吭샤 天命을 누리오시니

亭上牌額을 세 사를 마치시니

③ 寔賊入京 天子出外 諸將之功 獨眼最大 君王欲去 實賊入京 二將之功
一人克成(49장)

역문:

셔볼 도즈기 드러 님그미 나갓더시니 諸將之功에 獨眼이 노프시니

님그미 나가려吭샤 도즈기 셔볼 드더니 二將之功을 一人이 일우시니

례문 ①에서는 원문의 대명사 《其》가 역문에서 생략되었고
 ②에서는 원문에서 보충설명으로 되는 《不錯》이 역문에서 생략되었고
 례문 ③에서는 원문의 상황어로 되는 《最》와 《克》이 각기 역문에서
 생략되었다. 이와 같은 생략은 주로 그 내용이 부차적인것으로서 있으
 나 없으나 역문에 큰 영향이 없고 또 음절수의 제한을 받는 역문이 될
 수록 음절을 줄여야 하기때문에 생략한것이다.

3) 중복을 피한 생략

례:

① 既驚名號 於後獨立 手射數人 克五千敵 既畏名號 於後獨出 手斃無算
擒百艘賊(61장)

역문:

일후를 놀라수 바늘 흐 병사 뒤해 셔사 手射數人吭샤 五千賊 이기시니

일후를 저쓰바늘 흐 병사 뒤해 나샤 手斃無算吭샤 百艘賊 자보시니

② 昔周大王 於幽斯依 於幽斯依 肇造丕基 今我始祖 慶興是宅 慶興是宅
肇開鴻業(3장)

역문:

周國 大王이 幽谷에 사르샤 帝業을 여르시니

우리 始祖 | 慶興에 사르샤 王業을 여르시니

례문 ①에서의 《名》과 《號》는 일정한 구별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서로 비슷한 단어이다. 한문에는 비슷한 단어를 라벨하는 수사수단이 있지만 이 수단이 조선어에 와서는 쓸데없는 중복으로 되기때문에 둘중의 하나를 생략한것이고 레문 ②에서는 《於幽斯依》와 《慶興是宅》이 각기 두번씩 반복되었는데 이 형태를 역문에 그대로 옮겨놓으면 불필요한 중복으로 되기때문에 역문에서 각기 한번씩 생략한것이다. 그리고 이 레에서는 상황어로 되는 시간명사 《昔》과 부사 《肇》를 생략하였는데 이 두 단어가 시가체와 같은 문체에서는 군더더기로 되기때문에 역문의 음절수를 맞추기 위해 생략한것이다.

4. 각이한 수법의 유기적결합

『룡비어천가』에는 각이한 번역기교들이 조선시가의 운률을 맞추어 다양하게 표현되고있는데 아래에 몇개 실례만 보도록 한다.

례:

天絕獨夫 緯彼功勳 東人稱美 烏伊漢民 天廢獨夫 緯我功德 漢人嘆服

矧伊東國(72장)

역문:

獨夫를 하늘히 나조사 功德을 國人도 숨거리니 漢人 무슨미 엇더호리잇고

하늘히 獨夫를 보리샤 功德을 漢人도 숨거리니 國人 무슨미 엇더호리잇고

례문의 역문을 보면 《緯》는 어두에 쓰이는 조사로서 실질적의미가 없기때문에 역문에서 대응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矧》은 연사(連詞)로서 《하물며》와 같은 관계적의미외에 실질적의미가 없고 조선어의